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84호 [루제 제26058호] 주제 107(2018)년 7월 3일(화요일)

사설

승리의 신심드높이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매진하자

전체 인민이 혁명적인 충공세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펼쳐 위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명렬한 공격전을 개시해 끝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앞에는 자력갱생의 가치 높이 당시 사상관철, 당정책을 위로하는 불길을 더욱 세차게 털어놓을 공과 국방 7·0 대회를 승리의 대축전으로 강창하여야 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두 조선로동당의 령도 아래 문화 조성의 강용한 기상을 뜨겁게 맞이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힘있게 향하여 험난하고 나아갈 것이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0 대회를 가장 성대하고 뜻깊게 맞이하는 것은 우리 인민 모두의 비범한 분분이 고도이다.

세상에 나라는 많아도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인민들이 있다. 그리고 인민적인 것이 최우선이 되는 나라는 오직 우리 공화국뿐이다.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의 물이 있어 우리 인민은 장강 수십성상 차우석이고, 원류는 삶을 누려왔으며, 역사에 뿐미 없는 시련의 고비들을 해쳐오면서도 신실하고 탁락에 처우를 있었

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 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조국, 후손 대대의 영원한 보금자리인 우리 공화국의 창건 7·0 대회를 기념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의의 깊은 일이다.

공화국 창건 7·0 대회는 정치적

의의와 사랑을 토록 적성과로 맞이하

며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가 지난

상반년 기간에 뚜렷이 드러났다.

나라의 맏아들인 우리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자력갱생

의 기치높이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령도의 천명성은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의 천명성은

높았으며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용에 기여해 기관생산업에서 통상운

수를 높였고, 대수확운동에 박차

를 가졌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들은 당과 조국과 인민앞에 지

난 사령각을 깊이 자각하고 한결같이

평화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활성화에

관여하는 의의를 가지고는 학연연구

과 학제적 학제적 학제적 학제적

학제적 학제적 학제적 학제적 학제적

도 높추지 않고 충공세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치울 용역이다. 어떤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아나서도 광범위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의의 깊은 일이다.

공화국 창건 7·0 대회는 우리 당과

인민의 무언의 투쟁정신과 광범위한

인민의 힘으로 높은 정치적

인민의 힘으로 높은 경제적

인민의 힘으로 높은 문화

인민의 힘으로 높은 청렴정신과

인민의 힘으로 높은 청렴정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해마다 그러했듯이 올해에도 7월을 앞두고 어려나라들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고귀한 혁명정신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제가 사는 단동방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에 접할 때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각별한 사랑을 알아온 저의 가슴은 뜻다른 감회에 잠기곤 합니다.

그래서 나이 70을 넘긴 후로 끊어오면 시도 편력을 저어하여 선뜻 듣지 못했던 뜻을 마침내 정히 들었습니다.

고유수시절로부터 60여년

저는 저의 이야기를 1990년 4월 어느 날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씨 2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내내 그날을 알고 사는 저에게는 어제같은 생생한 일입니다.

그 해 봄 어느 날 저희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저의 어머니 김순옥과 그녀들을 불러 주신다는 천만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라황에서 살면서 진건 세월 끝 마음속으로 그리던 어버이수령님, 만년이 태양으로 떠받드는 수령님께서 어떻게 되어 우리를 찾아주실가?)

한편 꿈만 같았고 한편 놀라울 일이었습니다.

불현듯 저의 뇌리에는 어머니 김순옥이 수십년간 정히 보관하던 놓고 뜯어쓰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1929년 고유수에서 살 때 혁명가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준 적이 있었던 그때와 무슨 연고가 있어서가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60여년전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어머니는 능히 보관해둔 놓고 뜯어쓰는 것과 같은 행동을 가끔은 세월 마을 속으로 놓고 모셔온 물에 대한 하염없는 추억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유수에서 혁명활동을 벌여온 저의 김성주 풍경에 대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빼면 아마 저는 그때의 일을 연출로 어버이수령님을 찾아가 뵐까 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어찌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언감생심 그런 생각을 하다니 하고 자기를 자제하여왔습니다.

바로 그 낯 그릇이 어버이수령님의 부드름을 받는 꿈같은 연줄을 이어놓게 되었던 사연을 우리는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회들이 막상 평양으로 떠나자마자 저에게는 그때마다 기력도 그걸질지 않고 말도 세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불망 그리던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게 된다는 오직 그 하나의 기쁨으로 빅터를 들풀으며 우리 일행은 어머니를 부축하고 굽히 평양을 향한 퍼포에 올랐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여 국민들을 위한 초소에 떠장을 푼 저희들은 먼저 어버이수령님께서 깊이 관심하여 주신 일정에 따라 수령님의 사랑이 어떤 새옷들로 단장하고 처음으로 조국의 현실을 체험하였습니다.

제회들이 그처럼 기다리던 날, 어버이수령님을 불러주시는 행정의 날은 바야흐로 4월 15일을 머칠 앞둔 4월 10일이었습니다.

제회 일가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당도하였을 때 아, 이게 행일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먼저 나와서 계시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두팔을 벌리시고 저희들에게 마주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회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와와 압기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리지고 그 무엇인가 이를 할 수 없는 정회가 가슴에 뜨겁게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저희들이 마음을 진정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주름길은 얼굴의 그 어디에서 인가 2·2 살때의 옛 모습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안락에 어느덧 형언할 수 있는 강렬한 감회의 빛이 어리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저희들을 불러보시면서 뜻내 감개에 젖은 음성을 이렇게 고시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와준 동무들과 자리를 같이하니 매우 기쁩니다. 오늘 동무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회포를 나누고 합니다.》

(혁명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더니?)

극상에서 식사를 떳떳이 보장해드린 일이 있다는 것에 모르는 저희들은 일순 어안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순간 어버이수령님께서 저의 할아버지 혁명에 대하여, 어머니 김순옥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여서야 저희들은 의의 깊고 깊게 무량한 자리를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더소나마 알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디는 모르던 할아버지의 일대기와 어머니의 일이었습니다.

원래 평안북도 박천이 고향인 할아버지 혁명을 찾았을 때마다 그가 내내 김순옥과 당시에 만난 사람들의 놓고 뜯어쓰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면서 어버이수령님의 고유수시절과 인연이 있는 한 너인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부리워 바라보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면서 어버이수령님의 고유수시절에 대한 숨놓은 최대의 네월이었습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순옥의 셋째

현종옹

서 살았는가도 다정히 물어주시고 그 지방에서 살던 사람을 만나기는 처음이라고, 그 지방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나니 반갑다고 하시며 전자식을 대해주듯이 더없이 각근하게 위해주시었습니다.

얼씨 어버지를 잊고 추억할만 한 사건 한창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어버지를 묘시고는 사람들을 내심 부리워 하면 저와 시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저의 안해는 솟구치는 걱정을 금할수 없어 선이버지를 찾듯 스스럼없이 『아버지!』라고 목에 끼워 머저 나오는 오열을 참으셨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은 청정 저희들의 어버지 이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나고 계시는 이 세상 가장 고결한 의리와 담담한 사랑이 그처럼 절절하게 부르고셨던 그 부름에 다 합죽되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영광님친 그남의 자리는 결코 지나온 럭사를 추억하기 위한 회우가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의 길을 헤쳐오다가 먼저 예나간 동지들이 날카고 간 철들을 책임지고 보살피시는 것을 자신께서 하셔야 할 용당한 사명으로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세계가 깊이 깊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유수에서 혁명활동을 할 때 혁명선생의 집에 머물렀었고 오가자에 가있을 때에는 문조 양동동무의 집에 가있었습니다.》

조선혁명의 대중적지반을 마련하시기 위

하여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쳐시던 고유수시절

에 감회깊은 추억의 맞을 내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어머니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혁명선생의 집에 가있으면서

신체를 많이 졌다고, 사실 그때에는 절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빙한 허리인 것입니다.

제회들과 함께 여지기에 앞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청진 일회에 저희를

만나시면 때를 상기하시면서 김순옥의

이름과 빙한 어머니를 위하여 모처럼

마련하신 고급밀차를 비롯하여 저희들

가족에 사랑의 선물을 가득 안겨주시

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당 일군에게 저희를

만나시면 때를 상기하시면서 김순옥의

이름과 빙한 어머니를 위하여 모처럼

마련하신 고급밀차를 비롯하여 저희들

가족에 사랑의 선물을 가득 안겨주시

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녁 가족을 위하여

비행기 빙한 고급밀차를 비롯하여 저희들

가족에 사랑의 선물을 가득 안겨주시

였습니다.

제회들은 더욱 울리게 하는 눈물겨운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머니가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인사말을 한마디

더이상 울리지 못한것이 저으기 아쉬웠었

습니다.

제회들은 더욱 울리게 한것은 그날이

비련되거나의 일에 대하여 일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나라가 해 빙한 데를 해 여름

어버이수령님께서 오가자지열의 열고자

를 만나시었을 때 해다고 합니다.

중국의 옛 문호는 한해의 계획은 곡식을

싣는것이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싣는

것이 있으며 100년의 계획은 먹을 턱하는데

있다고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인정의 세계

를 통증하고 폐상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 있다면 눈물겨운 인정의

세계를 폭파하였다며 어버이수령님앞에

무릎을 끌고 살고 싶을것입니다.

조선혁명의 빙명에 충화강지류의 이용

하강반에 차례잡은 고집마한 농촌마을인

고유수의 주인이 되어 두생용을 잘

하고 회의를 했던 혁명선생님은 그들이

모두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이

일군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현실로 꽂피우는 능숙한 지휘성원이 되자

경에 하는 최고 병도 자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

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의 일본새가 안팎침침으로 우리에게 절묘한 뜻을 냐에도 뚫지 못한 날관도 없습니다.』

최근간 성천군의 사업에서 희기적인 전환이 이룩되고 있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해 알자면 이곳 일군들이 내세운 목표부터 분석해보아야 한다. 함축하여 언급한다면 포부를 가지고 멀리 앞을 내다보며 크게 가지고 하나를 창조해도 오늘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조성하려는것이 군일군들의 태도이고 실현이라고 말할수 있다.

경에 하는 최고 병도 자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사업집과를 평가는 평론가가 아니나 사업의 설계가, 작전가,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음지구에서 팔달의 빛이 고이는 살림집건설을 놓고보자.

올해 4월초에 착공한 이 건설은 수백세대의 단층살림집들을 철거하고 3 8동에 근 9 00세대에 달하는 단층살림집들을 일떠세우는 방대한 공사이다.

이것은 모든것이 종족치 못한 군에서 축수 세워 이런 공사를 떨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가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그 규모보다 더욱 몰라와 을자내에는 내용이 있다. 당시에 모양, 병풍모양, 편모양으로 설계된 수십동 단층살림집들의 전경도 보면 도시와 떨어진 중산간지대에서 깨끗한 환경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문화를 맡아 이런 현실로 느낄수 있다. 특히 탐

일보양의 살림집형성인들은 성천군유의 특성을 적극 살려주고 있어 자신의 얼굴이 살아나고 매우 독특하다.

이미한 세부만 놓고도 군의 발전을 위해 일군들이 기울인 사업과 노력을 충분히 염볼수 있다. 『사실 이 살림집들의 건설계획은 세우는 데만 무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군일군들이 모여토의를 거듭하는 사업과 노력을 충분히 염볼수 있다.』

『일군들은 사업집과를 평가는 평론가가 아니나 사업의 설계가, 작전가,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음지구에서 팔달의 빛이 고이는 살림집건설을 놓고보자.

올해 4월초에 착공한 이 건설은 수백세대의 단층살림집들을 철거하고 3 8동에 근 9 00세대에 달하는 단층살림집들을 일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

하고 있다.

성천군의 전진보족이 간단치

않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성천군의 전진보족이 간단치

않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천들, 날로 일신되는 정당성을 구석구석마다에서 느낄수 있고 더욱 밝아질 군의 배일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는 군안의 교육기관들과 음지

구에 빠른 속도로 일어서는 새 살

집들...』

먹을 보는 과학농사, 번듯하게 정리되어가는 하

